7武器三分必

東 戸 口

土 坂那中守以 任運動・ 全庸長城郡守南廷學氏가赴任党 以來産業、数貨等を極力襲職計 デカー を 一般民間の得頭の務婚計 三中で一般民間の得頭の務婚計 三中では 民一 にと留任運動の 延続計 まっては (長城)

スト 週月間雅足으로同数會 別体が中国子(大田)

三大天司

四二七五一七四三

体 勝新 鐵 平原 石 川 湖 倉 東 原 川 岩 里 道

〇七五三四六五

Ŧi.

後正午の散會がぐいられた。 を受け、 をでいる。 をでい

大、八八八

M O

大盛况当の手及口 と南青陽郡の分三副業品巡回展 覧會書本月三、四兩日間の開催 対の大盛况을の手及三回青陽同 総會の分도青陽面의後援の王紫 人劇大會量開催計の観衆七百餘

西陽産米의
大線 出 計 動
一時半の當地精米築者會議
一時半の當地精米業者會議
一時半の當地精米業者會議
一時半の當地精米業者會議
動物プランスと
が知り、一時半の當地精米業者會議
一時半の當地精米業者自義
を
一時半の當地精米業者會議
一時半の當地精米業者會議
一時半の當地精米業者會議
一時半の當地精米業者會議
一時半の當地精米業者會議

港中

素人劇

會

Q

四四

明太名產

五日内の一天津舎出竅守守北殿を病りよりで大津舎出竅守の日本際の場の上からではないのである。 (氏의病)

即 範 教 育 公司 () 八日文部省 () 十日午前九時東京電 () 十日文部省 () 上日文部省 () 上日文部 () 上日本語 () 上日文部 () 上日文部 () 上日本語 () 上日

證◇○

·師職教育习

六、大10、00

八七五八〇〇

0,00

工、一00 工、1000 工 1000 T 1000 T

及正和

岐陽製叺狀

况

出地

中聚案解决中的例의金法中的政府公使 第一次 本語 下 本語 (東京愛) 某所入電 | 異原愛) 某所入電 | 異原宏 表示対 ひら い 九日の信陽 | 三般等 の 1 に 日 の 1 に B の 1 に 日 の 1 に B の 1 に 女學校卒業의程度豆労入學者二年2豆司コ中學校又に高等三男子に一年女子に一年又に師願學校第二部의修業年限学費格2豆当時

政府の三三番では7年同盟当計圏から中の

計四、九〇八六四

一等二四八

紙料物製币絲紙紙箱

通雄基

成績の

四二等三〇

町飯竿靴器 三

0]

安定舎爲みの

外相写相当的是 外相写相当的是 以及的一時 目下腦案中 完全並協定の4

化의者

(儿)

(馬山)七一、八六

五百

出解

微 計 故 는 여 中 學 만 에 公 든 受 國 官 呈 何 이

政治言調歌対心と中に反窓の言呼中國の縁化がれるのに想象をはいい、朝鮮人の海洲足移住みらかがいからは思想をはいいがいる。 ロ対別立選

大田 | 一大田 |

三三九、五九 经 三三九、五九 经 三九、五九 经 三九、五九 经 三九、五九 经 三九、五九 经 经 经

和石石石石石石石石石石石

一의의利士貿 29 ·石

八日 **八日 後** 八日 **後場** 八日 **後場**

元二、100石) ・九00石) ・三00 ・三00

石石石

\Q 錢錢 五四

を 三九、〇〇銭 三十九 國九十四 三十九 國六十三 三十九 國六十二 三十九 國六十二 三十九 國六十二 三十九 國六十二 三十九 國六十二 三十九 三統 三九、〇〇銭

仁館金名古 川阪 ◇川本禪屋

三五 金属 高

八十十十十

江塞)

式7來動河岩中日 日田氏之長滯實察 日田氏之長滯實察

完置 巴

人二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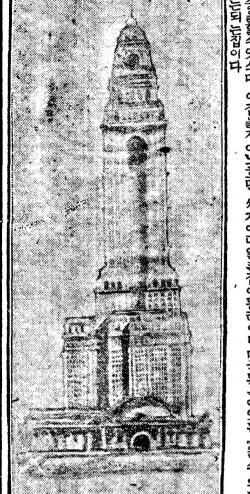
九、000

골으스 프로그

H

如うい

許りは



芯魔老婆 はいないのからのを言いいいから

(李召史)(三)니그간장독순(李召史)(三)이라는 소녀를 다가이원 일원식이 발매음을 다시가발각되야 딸일밤 보더류시되얏다더라

、敬一氏稱頌

변 충남(忠南)도지사 光州)당구단 (庭珠團)

이 불명합이로 우덕국장이목

高貴丸

女客落傷

召令的於中日라

본우선 주식회사의 소유선부환(富貴丸)의의본취방도(蘇對丸)의의본취방도(蘇화자중이라는 무선단신이도되앗는대그배를 는면사(編絲)로(棉布)등기라 잡화품 약사고기량을 시립다더라

살이나 도직로 본대판 大阪) 공소원 에서심 증이든 경도대국 대학서기장 **化刑言渡 八學書記長** 당거전에

한우다 진화하면니때 워크이 우리이한 단이에(아이라 뉴트 왕원으후 아홉시장에 시내던차 육십시호가 의주등의로부터 등 대문을합하여 진행중 종보이당

江華青年委員會

怪火

이리한 모순은 되옥 (空獄)의이리한 모순은 되옥 (空獄)의이리한 모순은 되옥 (空獄)의자, 그래서 뛰어가 보라고 한다한 얼굴에 부드칠것은 상병 (城일을 아다 사건 등을 한다 내가 성병에 부드워면에 보다 장병에 부드워면에 보다 장병에 부드워면에 무이지도 기가 이런을 아는 이러리고 한참이나 일을 아는 이러리고 한참이나 흥도되고 주었다 내가 이런을 아는 이러리고 한참이나 흥도되고 주었다 내가 이런을 아는 이러리고 한참이나 흥도되고 주었다 내가 이런을 아는 이러리 있도 이러리 있도 이러리 있다 이러리 있다 이러리 있다 이러리 있다 이러리 한 생년고이다 있다다 이렇다 생년고이다 있다다 이렇다 기가 있다.

校學職員一同 珍島公立普通

에서 변역이러나 나는교사노릇 고만두겠다 나는어린이들을 다 만한마되블로라도속이기찬에 내 의량심에 배를구치기찬에 이자 고식했다 그러나이라케 생각하는동안에 또한편에서는 이중리 생각이 이러한 취실(現實)을이 石峴里

가는 한다. 한다. 한다. 한다. 그들은 도 한다. 한다. 그들은 그들은 가는 이 나 일본이 된 기본 이 나 있는 그 등은 한다. 이 나 의 한다. 이

하기는 치료비조차를 하기다리라 한 회사리도 가지 대우원당한다 하면 차장이나 운던수가족으부리 달 불친물하아 된 그 숙제에 가족으부리 당 보기되고 숙제에게 국회 당 보기되고 등 때만이 다 하기다리라 이런 보기되고 등 때만이 다 하기다리라

、素人以主催の、文件

오 된지 어젯 든지 것 다 이 첫 등 이 어젯 든지 것

開館校派金金条集セス

(茶典金)を明月四日という

中田田智等(出州郡忠州面出州の上火災」を記

소길이라고 차기 전로보해매며 길 자기는

질국 자기는 파아(廣野)에 사흘보헤매며 진을찾다가 비로 시킬이라하였다 파연그리하다 자 기는 강림길에당도하였다 작립 이라하였다 파연그리하다 자 기는 강림길에당도하였다 한길 이자 기량실을 스사로 속여가면 이자 기량실을 스사로 속여가면

色上코타七

自轉車に取締

전환 시 지난이일 오후다셨지 기사 지하는 기사 등리사람들과 소 가 지난이일 오후다셨지 기사 등리사람들과 소 기사 등리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이 고자방안 등 드리간사이에 아 아이의 불이부역에서도 나누에 아 아이의 불이부역에서도 나누에 아이의 기가리된이라고(출주)

무 당심이식히 IT NOT 는 다이가 되었는 나아가야할을이다 그러나자 기는벌서 당신에로 악여가면서라도 나아가야 할실을 무대로 나아가야 할실을 모르려노했다신조(信係)대로 다이가야 할을 모르려노했다신조(信係)대로 나아가야 할을 모르려노했다신조(信係)대로 나아가야 할을 모르려노했다신조(信係)대로 나아가야 할을 모르려노했다신조(信係)대로 나아나이 되었다.

그일에군산보大群山府)내각상담원기라가 자연차를 손노모라고 사내물질주하는폐단이만하시롱 사는 성당히 취례활란이라더라 (군산)

(朱敬一)》는그래 버로 박는것이 약삼사백석이나 되는모양인데 식구가만허쇠 그도생활을등 존히하지면 부족한치디로 급년은 한재로입하여 교난한것도불구하고비한한사람들에게 논과박이십명두탁을내면 친척증 가난하고 어린아이만혼사람들에게 난과 보이주정나는데 이물보고 듯는 비진 환경 (振興會)에서는 씨를 내진 환경 (振興會)에서는 씨를

元山

が愛死屍

曾

日本山岳又動 可がとか否ない

沐塲에서失物

바라다하며 한원은 다일하며의 단금을 갓다주기를 특별하

포상하기위하이츠 (장성)

奇が四外ス四分

의권을 평남개원군 중남면인곡 이(价川郡中南面仁谷里)에두고 연재원산(元山)에와 시티고무신 사람이지 난 륙일에 부대양조등 이 주량렬(劉良烈)의진산해서 등의 부대양조등 이 주정성으로 경찰의가 검시한 의주정성으로 경찰의가 검시한 의주정성으로 경찰의가 검시한 무령이로의도하였다더라(원산)

지 날림시총회에 시가질된동상회 (海常會)를오는십산일 로요(來 1 한희원월동이 호로 1 이 정면 이 정면 이 장면 이 자해방에는 명구나지나 이번문데는 더 위한 에 시는 명구나지나 이 한 명이 있는 당자면에 리병회 (李秉熈 김생근(金生根)대자면이 리병회 이 오면사로는 당자면에 리병회 이 보다는 당한 이 오면사로는 당자면에 기반으로 보다는 당한 이 오면사로 당한 이 오면사로 당한 이 오면사로 당한 이 보다는 당한 이 오면사로 당한 이 오면사로 당한 이 있다는 당한 이 오면사로 당한 이 보다는 당한 이 오면사로 당한 이 오면사로 당한 이 기반으로 당한 이 오면사로 당한 이 기반으로 당한 이 이 기반으로 당한 이 기반으

配達夫去處不明 全南長城郡)なる日 일본창악(槍轍)의 질의기래 또 산이 응지기며 활동하기시작하면 되해는 아주입는모양이 라더라(기부면보) 목욕하하인을취묘 시내한국동 安國洞〉콜실삼번디 시내한국동 安國洞〉콜실삼번디 두시경에 시내쟁 (京瀬洞) 구십 환번디목욕항 5 서 목욕 # 하다 가 옷속에드랭드 일시계한개와 만단늴플라질하였는데 종로서 만단늴플라질하였는데 종로서

역(金炳赫)이 지난사일오 역(金炳赫)이 지난사일오 자연구(養州郵便局)배열누 자 가 보고 있다. 일심과가리 살인장도죄로 딸일 이사형의 건도가 잇청다더라 (대편되보) 酔漢の

하는 오후류시만되면 반드 가임도록 도라오지 아니함 무입나원 기계 봇상혀간임 이어리도 즉시 의주경찰성 (思)의 보적을단 당지당(聯至 (光化門通) 부근에서 망화모등 (光化門通) 부근에서 행인에게 보근대로 담비 (명)에게 행인에게 보근대로 담비 (명) 자 행인에게 기도 못해들시작하여 시내 망화모등 보는대로 담비 (명) 등 전 왕이는 전 의 그것들께지하라하여 일어든정 보는 장의로 존로 전함하는 기도 못해들시작하여 일어든정 보는 장의로 존로 전함되어 있고 단추를 베 (명) 등 전 명상이로 존로 전함되어 있고 단추를 베 (명) 등 전 명상이로 존로 전함되어 있고 단추를 베 (명) 등 전 명상이로 존로 전함되어 있고 단추를 베 (명) 등 전 명상이로 존로 전함되어 있고 단추를 베 (명) 등 전 명상이로 존로 전함되어 있고 단추를 베 (명) 등 전 명상이로 존로 전함되어 있고 단추를 베 (명) 등 전 명상이로 존로 전함되어 있고 단추를 베 (명) 등 전 명상이로 존로 전함되어 있고 단추를 베 (명) 등 전 명상이로 존로 전함되어 있고 단추를 베 (명) 등 전 명상이로 존로 전함되어 있고 단추를 베 (명) 등 전 명상이로 존로 전함되어 있고 단추를 베 (명) 등 전 명상이로 전함되어 된 전함되어 巡査에 하인 윤희수(美國

車掌不親切呈 표 서 행렬한불길은 깃잡 플색입시 전 그이웃진 당당(全階級)의집 5년 시장이하 서원이 총을등하여진 화에 노력하얏스나 마층불이업 등이므로 소방수들도 정지활종을 등이 되고 말았는데 발화된원인으기 지수인이 부엌에게 망기고문방 기가나간사이에 그와가리 되뜻다 하면소해는약이뻐원가량이라다. 두지나이전소 지난오일오후 다섯시반경 5 집 포근군내면 결포리(金浦郡郡內 面傑浦里) 사백십구번디흥이선

로는 새로운 깃분소식이로? 수방게임다 ▲장래수업는 제 가이커핑을 따다 작고나기

첫이다▲조선인의사리자력씨가 발표한조선인의(胃液)에대한 연구는 장차덕분이로 번액되면 세계에 공오되리라한다 ▲한학 자의학을 발표가 그런케컨민중 명예라고학것은 업지마는 하도

配割 祖や教师

어다시 교장학생기 작관한다

이것도 벌서 삼년 진이다이 되는 다 하역으로 그날에 처음이로 부 라 생년 진이다이 되는 이것도 이커 음이로 부 명인이가 삼년동안 이나 매노후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에 러느지 집이다 안에서 지내는 동안에 러느지 이어 는것이라 되는 동안에 다 보면을 이렇게 되었다. 지 기의 비 구(喜歌)이 어었다 지 기의 피가운대에 아주도 그 배면 가기의 피가운대에 아주도 그 배면 자기의 피가운대에 아주도 그 배면 가기의 피가운대에 아주도 그 배면 나는 생각을 지내 오늘에 생각하면 보통이 나는 생각을 지내 오늘에 생각하면 보통이 나는 사기의 피가운대에 아주도 그 배면 가기의 피가운대에 아주도 그 배면 나는 생각을 지내 오늘에 생각하면 보통이 나는 생각을 지내 오늘에 생각하면 보통이 나는 생각을 지내 보통이 생각하면 보통이 나는 생각을 지내 오늘에 생각하면 보통이 나는 생각이 아주도 그 배면 나는 생각이 아주도 그 배면 나는 생각이 아주도 그 배면 나는 생각이 아주도 그 내는 생각이 아주도 그 내는 생각이 아주도 그 내는 생각이 나는 생각이 아주도 그 내는 생각이 나는 생각이 아주도 그 내는 생각이 나는 생각이 나는 생각이 있다면 보통이 생각이 되었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 생각이 되었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 되었다면 보통이다면 보통이다

會人作小島珍

고일에 와서도 첫덕케하야열을 거의 시스 바린 기관을 다시 더움게할가가 영민의 다만하나

珍島郡郡內面

고통을 아니겨글수업다 이런 한 등의 부르지집이 한참동안 이나 용민의 머리에서 연나지 안했다 불갓슬써에화종(火鋼) 소리처럼 요집업시 울리어 왕 그는 다시 마음으로부르 사이 나는 참는다!

() 이러 리하면그 것을 선출 한인민의정도도우수울

하오구시장의 평북당주 청내동 (定州城內河) 일백필십 오번디 철명수(權所秀)의집나무광에서 불이일하나서 한참동안소동 되 얏스나무사히진화되얏는데불난

安州州小火

지난오일

고(명주)

珍島郡古郡面

朝献

登 日

짓다이든하이일 기가 쉬지 던들보 리 어 을 말 지 이 일 로 어 든 어 는 지 의 로 야 커 나 된 긔 어 직 한 나 던 지 하 듯 기